

첨단 기술 접목...나주 관광 콘텐츠 '한눈에'

시, 4월부터 '나주관광10선 XR 게임 체험장' 운영 금성관·영산강정원 등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나주시가 가상융합(XR) 기술을 관광 콘텐츠와 접목한 체험형 공간을 조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빛가람 호수공원 내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에서 '나주관광10선 XR 게임 체험장'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남도, 시가 지원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수행한 '2025년 전남 메타버스 지원센터 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콘텐츠는 금성관, 영산강정원 등 '나주관광10선'을 배경으로 한 모션 인식 게임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별도의 장비 없이 몸을 움직이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다.

특히 '2025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중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

영해 콘텐츠 완성도와 재미를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나주시 대표 캐릭터 배틀이, 흥돌이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부스를 운영하고 촬영한 사진은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소장할 수 있으며 게임 랭킹을 달성할 경우 현장에서 즉석 사진 인쇄 혜택도 제공된다.

체험장은 별도의 상주 인력 없이 운영되는 무인 시스템으로 구축됐으며, 기기 이상 등 상황 발생 시 지역 내 기업인 글랜 507이 원격으로 실시간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갖췄다.

시는 이번 체험장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가상융합 산업 생태계

를 구축하고 성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산업 선순환 모델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체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방문객은 현장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동렬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체험장 운영은 가상융합 산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를 구축하고 성과를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산업 선순환 모델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체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방문객은 현장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동렬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체험장 운영은 가상융합 산업의 성과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관광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을 찾은 시민이 XR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순천 연향들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들어선다

순천 '연향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이 최근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향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사업은 2025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50억원, 시비 148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10개 코트를 비롯해 수중운동실, 배드민턴 특화교양장, 스마트 배드민턴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부 시설 구성은 순천시 체육회, 순천시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

총사업비 198억 투입...2029년 완공 목표



순천 연향들에 들어설 예정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감도. 사진제공=순천시청

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목 특화형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를 통해 연향들에 문화관광,

1번지 일원 상업시설(호텔·리조트),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시는 연향들 준주거용지에 대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대폭 완화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문과 도면 등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연향들'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 및 신청접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입찰 신청은 4월 23일 진행된다. 개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연향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시는 이를 통해 연향들에 문화관광, 1번지 일원 상업시설(호텔·리조트),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시는 연향들 준주거용지에 대해 중도금 납부 일정을 대폭 완화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문과 도면 등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연향들'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 및 신청접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본입찰 신청은 4월 23일 진행된다. 개찰 절차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연향들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 거점이 될 것이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서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 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50만원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곡성군이 구직 과정에서 지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곡성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곡성을 '비밀언덕25(읍내 25길 2-1)'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1대 1 밀착 상담·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및 이수·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원, 장기 과정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이수·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단념청년(문답표 21점 이상)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곡성군은 지역특화청년 제도를 통해 일부 대상에 한해 만 49세까지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특히 군은 '경쟁이 아닌 지지하는 관계'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취업 교육을 넘어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뉘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과정별로 수당과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액은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원, 중기 과정 참여수당 150만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곡성군 청년도전지원사업 통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도전에는 자금과 경험뿐 아니라 나를 믿고 지지해 줄 든든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영암군은 최근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영암, 고품질쌀 유통 혁신 본격 착수

230억 투입 연 3만t 처리 기반 구축...농협 8곳 참여

영암군이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RPC 착공에 들어가며 쌀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섰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서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쌀 가공·유통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배기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연간 3만t 처리 규모의 통합RPC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8개 농협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RPC 방식으로 추진돼 분산됐던 유통 구조를 하나로 묶고, 영암 쌀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생산 중심에 머물렀던 쌀 산업 구조를 가공과 유통, 브랜드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끄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완공 시 영암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통합RPC를 중심으로 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행정과 지역농협, 농업인이 함께 협력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쌀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화순, 에코힐링타운 개장...7일부터 시범운영

"지속가능 관광자원 개발"

화순군은 최근 한천면 오음리 한천휴양림 일원에서 에코힐링타운 개장식을 개최했다.

에코힐링타운은 바쁜 일상에서 휴식과 치유를 찾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치유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관광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

지난 27일 열린 행사에는 구북군 군수를 비롯한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간부 공무원 간담회도 이어졌다.

에코힐링타운은 화순 한천면 오음리 산 1-1 일원에 조성된 자연 친화형 복합 힐링 공간으로, 휴양시설과 산책로, 그리고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개장식을 시작으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4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보안을 거쳐 5월 1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에코힐링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수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과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광, AI-IoT 건강관리사업 참가자 모집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영광군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건강관리사업 신규 참여자 300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 건강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비대면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

는 사업이다.

대상자별 건강측정결과에 따라 AI스피커, 손목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 등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를 1~2종씩 제공한다.

모니터링은 스마트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추진된 건강 정보는 전문 인력이 상시 확인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영광=정규필 기자